



러시아연구소-연계전공 러시아학 특강1: 루소포비아와 루소마니아 사이

지난 11월 30일,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3동 434호에서 서울대 러시아연구소와 연계 전공 ‘러시아학’의 공동 특강 시리즈의 첫 번째 강연회가 열렸다. 이날 강연은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책임연구원 전미라 박사의 ‘루소포비아와 루소마니아 사이: 19-20세기 러시아-소련을 둘러싼 여러 서사 담론들’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본 강연회에서는 19-20세기 러시아-소련을 둘러싼 루소포비아 및 루소마니아 담론을 서사학적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러시아 관련 담론들의 이해를 넓혔다.

전미라 박사는 먼저 루소포비아와 루소마니아라는 개념을 정리하며, 19-20세기 러시아-소련을 둘러싼 서구-러시아의 루소포비아 및 루소마니아 담론을 일괄했다. 루소포비아는 ‘러시아 혐오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전 박사는 러시아에 대한 루소포비아적 고정관념을 ‘게으름’, ‘술’, ‘잔혹함’ 등의 키워드로 분석한 메딘스키의 논의를 빌려, 상술한 고정관념이 러시아의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전 박사에 따르면 루소포비아는 현재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 18-19세기 유럽이 러시아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도 존재한 것이었다. 이러한 루소포비아는 역사적 경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인에 대한 혐오와 유사하다. 기 메탕은 서구의 루소포비아가 러시아를 타자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것은 외부적 적을 창조함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서구의 필요에 닿아있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루소마니아는 루소포비아의 대척점에 위치한 경향으로서, 러시아 문화를 추종하는 경향이다. 루소마니아 역시 과거에서부터 존재했다. 전 박사는 루소마니아의 사례로 19세기 초반 영국의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그 이후 확산되기 시작한 러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 등을 언급하며 크게 문학, 오페라, 발레의 세 영역에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영국 내 러시아 열풍을 설명한다.





전미라 박사는 19세기 후반 서구에서는 러시아에 대해 한편에서는 후진적이고 야만적 민족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러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었다고 정리했다. 전 박사는 이 대조적 현상이 러시아라는 같은 대상을 두고 일어난 시선의 차이라고 분석하며, 루소포비아와 루소마니아의 공존 현상에 대해 서사학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전미라 박사는 주네트의 서사 개념을 빌려와 서사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전 박사는 서사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설명하며 서사에서는 수신자와 발신자의 관계 속에서 사건이 배열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서사 전략의 분석은 내포 작가, 서술자, 내포 독자라는 세 주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설명하며, 루소포비아와 루소마니아의 경우 생산자에 따라 그 내용이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 박사에 따르면 기존의 루소포비아 현상에서 대부분의 생산자 혹은 내포 작가는 유럽이었으며, 이때의 루소포비아는 러시아의 후진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반면 미국이 생산하는 루소포비아의 경우 러시아를 잠재적인 적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2016년 미국 대선의 러시아게이트에서 미국이 가진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상징적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박사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주체가 되어 생산되는 루소포비아 담론 역시 존재하는데, 러시아를 향한 국외 언론들의 기사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이노스미’(ИНОСМИ)와 같은 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되는 루소포비아 담론이 일례이다. 전 박사는 루소포비아 담론을 서사학적인 관점에서 좀 더 세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발표 이후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노어노문학과 송은지 교수는 루소포비아 현상에 대한 서사학적 접근에 공감하며 ‘내러티브전’(Narrative Warfare) 문제는 이데올로기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의 모든 갈등상황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지 레이코프의 연구 등 인지언어학적 측면에서도 루소포비아적 현상을 이해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대학원 원장 김현철 교수는 루소포비아와 루소마니아가 공존하는 현상을 현재 일본 내 한국에 대한 시선, 한국 내 중국에 대한 시선 등과 비교했다. 노어노문학과 백승무 교수는 루소포비아 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 시기적 분리와 주체의 구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이선민 박사 역시 루소포비아 현상 연구의 시기 구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연속적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어노문학과 박종소 교수 역시 루소포비아 및 루소마니아가 연속성을 가진 현상이라는 점에 공통된 입장을 보이며 그 중핵으로서 러시아의 민족주의를 지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내러티브 수신인의 입장 고려를 통해 루소포비아와 루소마니아 담론의 상관관계와 역학관계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노어노문학과 정하경 교수의 언급을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이 마무리되었다.